



오늘의 날씨와 생활

6월 11일 목요일 음 4월 26일 (3월)

목요일론

기상정보

맑음



제주에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9°C, 낮 최고기온은 23-26°C로 예상된다. 해안가 너울이 있겠으니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data for Jeju, including precipitation percentages and wind directions.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information.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산불위험지수 낮음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visibility information.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구름많음 17/25°C, 모레 흐림 18/25°C

월드뉴스

美 '헬기추락' 보복에 이란도 미군기지 공격

중동 위기 재점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10일 (현지시간) 미군 아파치 헬기 추락을 계기로 무력 공방을 재개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들. 연합뉴스

미 중부사령부는 "군 통수권자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며 헬기 격추에 대한 비례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방공망과 레이더 등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실시했고, 이란은 바레인인 미 해군 제5함대 기지와 요르단 알야즈라크 공군기지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하며 재보복에 나섰다.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고, 혁명수비대(IRGC)는 역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미 중부사령부는 공습 원료를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방공시설과 감시 레이더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email addresses.



양상철 융합서예술가·문화칼럼니스트

6·3 지방선거라는 거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일상이 찾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도민들은 '위대한 제주의 시작'을 슬로건으로 내건 위성근 리더십을 통해 제주의 변화와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열망의 결과다.

위성근 도정 출범, 이제는 성공 위해 힘을 실어줄 때다

이번 선거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 탓에 초기부터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교하게 다듬어 녹여내야 한다.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고 도민의 삶이 담긴 대안들이 도정의 뿌리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출발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을 열고 힘을 실어줄 때 제주의 변화는 시작된다. 로버트 퍼트넘(Robert Putnam)이 말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즉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밑바탕이 돼야만 도정의 과감한 혁신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제는 선거 기간의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새로운 도정이 안정적으로 출발해야 할 때다. 마침 당선 이후 발 빠르게 조직된 도지사 직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제주의 밑그림을 그리느라 분주하다.

선거는 본질적으로 차이를 드러내는 과정이기에 얼마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다. 정책 대결로 성숙함을 보여주었듯이, 이제는 제주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에너지를 모아야 한다.

무엇보다 도민들이 먼저 마음의

열린마당

보철구 지급에 관한 사항 기준 완화를 요청한다 당신은 정말 안전하십니까



고경아 제주보훈청 보사과

6월 6일 현충일이 지났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다 돌아가신 분, 아픈 몸을 이끌고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 뿐이다.

철구 지급을 못한다고 했던 일들을 떠올려본다. 조금 더 기준을 완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보철구 지급이 안된다고 말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박상민 서귀포시 송산동 주무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이가 들고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가 필요하신데 그대로 살아야 하는 현실이 가슴이 아프다. 상이호수가 안 맞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시는 뒷모습이 슬프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안전 규칙의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안전모를 꼭 쓰고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며 위험구역은 출입통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직장 내 안전불감증, 이것은 한두 번 겪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너무 익숙해져서 "아, 또 이거지 뭐" 하면서 방심하는 순간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불어나는 게 현실이다.

또 직원들 각자가 본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관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사고가 터졌을 때 누구를 탓하기보다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문화를 만들어야 실수가 숨겨지지 않고 공유될 수 있다.

사고를 진짜로 막으려면 '안전의식'부터 제대로 바꿔야 한다. 뻔하고 지루한 교육보다는 실제 사고 사례를 영상이나 현장감 있는 이야기로 체험하게 만들어 기억에 남는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안전 책임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헛 일이다. 피드백과 동기부여를 통해 안전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Advertisement for Sorisem Digital Hearing Aids, featuring product imag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Sangho Danggujaeryo (Sanho Danggu Materials), featuring product photos and company details.